〈2026 지방선거 자전거 정책 제안〉

자전거 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 제안

2026.5.19

① 집 앞부터 목적지까지, 끊김 없는 안전 자전거길
② 아이들이 따릉이로 학교 가는 도시
③ 타면 혜택, 참여하면 변화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은 '자전거 친화도시'가 탄소중립도시 실현의 전제조건임을 인식하고, 자동차 중심의 '탄소 다소비'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자전거·보행·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활동하는 연대체입니다.

자전거시민포럼은 이를 구체화한 비전으로 '자전거 친화도시 1010(텐텐)'을 제안해 왔습니다. '1010'은 '10분 생활권'과 '자전거 이용률 10%'를 의미합니다. 이는 10분 내외의 생활권 거리를 누구나 안전하게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통행의 열 번 중 한 번 이상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시를 만들자는 정책적 목표입니다.

자전거시민포럼은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시민 참여를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1. 집 앞부터 목적지까지, 끊김 없는 안전 자전거길

생활권 중심 '안전·연결 인프라' 패키지

1 배경

서울시 자전거 인프라는 하천변·레저 위주로 조성되어 있어, 통근·통학·장보기 등 일상 이동에 필요한 '연결된' 생활권 네트워크가 부족합니다. 또한 현재 자전거도로 정책은 도로 연장 총량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단절된 구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연장 증가로 성과가 평가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도로 위 차선을 그려놓기만 한 자전거 차로는 불법주정차·차량 침범이 만연하고, 자동차-자전거 안전거리 기준도 법령상 '안전한 거리'라는 추상적 규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2 현황

서울시 자전거도로 연장은 증가하고 있으나 단절 구간이 많아 생활권 내 연속적인 이동이 어렵고, 구·동 단위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계획도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구간은 단편적 자전거도로가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등 연결되지 않는 '조각난 인프라'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과 공공기관 등 주요 거점의 자전거 주차시설도 부족하거나 노후화되어 이용 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합니다.

3 정책제안

① '10분 생활권 자전거망' 우선 구축

- 역·터미널·학교·공공시설·상권·하천·주거지를 촘촘히 연결하는 생활권 네트워크 구축.
- 구·동 단위 단절 구간 전수조사 후 연차별 정비 로드맵 공개.
- 신설보다 '단절 구간 연결'을 우선 투자 원칙으로 설정

② 자전거도로 설계 기준 '연결성 중심'으로 규정화

- 신설 자전거도로 최소 연장 기준 도입.
- 기존 도로와의 연결 여부를 사업 승인 필수 기준으로 설정.
- 자전거도로 성과 평가에 연결성·연속성 지표 추가.

③ 자전거 우선도로 실효성 강화

- 불법주정차·침범 집중단속 구간 지정, CCTV·스마트단속 연계.
- 사고 다발 구간 물리적 분리(볼라드·완충대) 단계적 강화.
- 자전거 전용차로, 우선도로 관리 조례를 통해 관리기준· 단속근거· 예산항목을 명문화.

④ 자동차-자전거 1.5m 안전거리 시범 시행

- 지자체 시범도시·시범구 지정, 노면표시·표지판·집중단속·캠페인 운영.
-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 교육 의무 + 위반 시 가중 페널티 협약·조례 추진.

⑤ 자전거 주차 인프라 의무화

- 신축·공공청사·철도역 등 주차면의 최소 10%를 자전거 주차로 확보하도록 조례 개정.
- 생활SOC·도시재생·하천정비 사업에 자전거 주차·연계시설을 필수 평가항목으로 반영.

2. 아이들이 따릉이로 학교 가는 도시

학교·청소년 중심 '따릉이 통학+ 의무교육+ 통학환경' 패키지

1 배경

어린이·청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통학하기 위해서는 교육, 안전한 통학로, 그리고 실제 이용 가능한 이동수단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이미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통학과는 제도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교육 의무화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한 서울시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 체계와 예산 지원이 부족합니다. 이에 자전거 통학 정책은 교육·통학환경·이동수단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공공자전거를 중심으로 실제 이용이 가능한 통학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황

현재 청소년들은 따릉이를 포함한 자전거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자전거 통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어 현실과 제도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학교 자전거 안전교육은 교과·창체·안전교육 시간에 권고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학년·교사에 따라 편차가 크며, 실습형 교육은 예산과 시설 부족으로 매우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시 자전거교육장은 일부 자치구에 한정되어 접근성이 낮고, 스쿨존 역시 속도제한과 표지 설치 중심으로 관리되어 통학 동선 전반을 아우르는 연속적인 자전거 통학로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출처: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2025.12.1) 서울 자전거교육의 격차, 시민 안전의 격차로 이어진다.)

3 정책제안

① 공공자전거 기반 '따릉이 통학 시범학교' 도입

- '따릉이로 등하교' 시범학교 및 시범지구 지정·운영.
- 학교 내 또는 정문·후문 인접부에 따릉이 정류장(통학형 스테이션) 설치.
- 자전거 안전교육 연계.

② 초·중학교 자전거 안전교육 의무 이행

-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연 2회 이상 이론+실습 자전거 안전교육 의무화 및 학생·학교별 이수 인증 시스템 도입.
- 자전거 교육을 체육·실과·창의적 체험활동 내 필수 프로그램으로 편성.

③ 서울시 25개구 자전거 안전교육장 설치

- 서울시 차원의 '25개구 1개 이상 자전거안전교육장' 목표 설정.
- 시-교육청-민간단체가 표준 교재·교관 양성과정 공동 운영.

④ 자전거 통학로(스쿨바이크루트) 조성

- 학교 주변 1~2km를 '통학 자전거 안전구역'으로 지정.
- 진입부 차량속도·통과차량 제한, 통학로 전체에 자전거 차로·횡단시설·주정차 금지 구간 배치.
- 스쿨존을 '차량속도·진입 억제 + 자전거·보행 우선구역'으로 재설계.

3. 타면 혜택, 참여하면 변화

시민 참여·인센티브 확대

1 배경

안전한 인프라와 교육이 갖춰져도, 시민이 실제로 자전거를 선택하게 만드는 동기 부여가 없으면 이용률은 오르지 않습니다. 현재 자전거 이용 보상은 일회성 이벤트·캠페인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출퇴근·통학·장보기 등 일상 이용을 꾸준히 늘릴 구조가 부족합니다.
특히 서울의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이용 기반이 이미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용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구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자전거 정책은 복잡한 보상 체계가 아니라, '타면 바로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인센티브 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황

국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자전거 마일리지 운동,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 등이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화폐·교통포인트와 연계한 체계적 보상 제도는 드뭅니다. 창원시(2009-2010)가 기업-지자체 매칭 방식의 자전거 출퇴근 수당제를 한시 운영한 사례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기업·공공기관의 자전거 출근 장려도 개별 캠페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용 절차의 번거로움과 낮은 체감도로 인해 지속적인 이용 확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3 정책제안

① 따릉이 탑승 횟수 기반 무료 이용권 지급
- N회 이용 시 1회 무료 방식 도입.
- 정기권 이용자 대상 추가 할인 제공.

② 자전거 마일리지·포인트 제도 강화
- 지자체 지역화폐·교통포인트와 연계, 출퇴근·통학·생활교통 이동거리에 따라 포인트 지급.
- 공공자전거와 민간 자전거 앱 이용 모두 인정하도록 데이터 연동·정산 기준 마련.

③ 자전거 친화기업/기관 인증제 도입
- '자전거 친화기업/기관 인증제' 도입.
- 샤워·탈의·주차시설 설치 및 자전거 출근 인센티브 제공 기업에 세제·행정·홍보 혜택 부여.
- 공공기관은 단계적으로 의무화.

④ 구·동별 우수 자전거 정책/활동 시상
- 의회·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연례 평가위원회를 구성.
- 구·동별 우수 정책·동아리·학교 선정. 상금·추가 예산·인사 가점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조례화.